

[새사회연대 성명]6.30 시민사회 탄압, 결사의 자유 침해하는 압수수색 강력 규탄한다

2008년 6월 30일 오후 4:43

민중참여민중시대

# 새 사회 연 대

Human Rights Solidarity for New Society

110-550 서울시 종로구 송인동 316-2 금강빌딩 4층 | 전화 02-2235-0062 | 전송 02-2236-0062

이메일 [nsociety@naver.com](mailto:nsociety@naver.com) | 홈페이지 <http://nsociety.org>

## 성명 전문보기 및 한글파일 다운로드

[새사회연대 성명]

**시민사회를 탄압하고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압수수색 강력 규탄한다.**

경찰은 6월 29일부터 촛불문화제 참가 시민들에 체포조를 투입하여 하룻밤 새에 무려 131명을 무차별 연행한데 이어 오늘(30일) 새벽 광우병국민대책회의와 진보연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집회시위 현장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활동양상을 익히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단체들의 연대단체인 두 단체를 압수수색하고 촛불집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컴퓨터와 집기

까지 모두 압수한 것은 단체의 손발을 묶음과 동시에 국민과의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우리는 지난 26일 고시 강행 이후 여성민우회, 녹색연합 등 대표적인 시민사회단체 대표자와 간부들을 연행한데 이어 관련 단체들에 대한 이념공세, 대책회의 관계자 구속 및 체포영장 발부 그리고 29일 이학영 YMCA 사무총장 등에 대한 무차별 구타와 오늘의 압수수색까지의 일련의 조치는 시민사회의 자발적이고 자유로운 활동에 대한 탄압이자 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까지 위협하는 것이기에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경찰의 집회 원천봉쇄에 대해 집회의 자유 보장을 요구하고 경찰의 위법한 법집행을 지적한 시민들을 닥치는 대로 연행한 것도 상식으로 납득할 수 없는 심대한 공권력 남용이다.

경찰은 시민사회를 탄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구속자와 연행자를 즉각 석방하라. 우리는 이후 정부의 대응을 주시하면서 국민과 함께 국민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쟁취하기 위한 활동에 더욱 매진할 것이다.

2008년 6월 30일

새사회연대

(대표 이창수)